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2차 정기회의록

일시 5/10(수) 13:3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참석 고경남(센터 전미희 실장 대리참석), 김기민, 김희자(부의장), 박정근, 박정애, 이선영, 최해숙, 홍수만(의장) 등 8인

위임 김경서, 김태석, 박현숙, 배정학, 차정화 등 5인

기록 김기민(간사)

- 성원 확인 (명)

재적	21	출석	8	위임	5
----	----	----	---	----	---

※ 성원 요건 : 준비위원 재적 총원의 과반(11명 이상) 참석(출석+위임)

- 신규 참석 : 없음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4/26(수) [11차 정기회의록](#) (붙임#1)

- 현황 공유

- [재정회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세부출납내역 붙임생략)

(원) *5/9(화) 기준

구분	수입	지출	잔액
1월	210,000	32,300	177,700
2월	190,000	52,520	315,180
3월	120,048	93,700	341,528
4월	110,000	37,200	414,328
5월	20,000	0	434,328
합계	650,048	215,720	434,328

- [회의 출석현황 및 회비 납부내역](#) (붙임#2)
- [창립총회 준비계획 추진현황 공유 및 점검](#) (붙임#3)
 - [창립발기인 조직 현황](#) (붙임#4)

참여 확정 (19)	단체 (9)	김기민(성북동천), 김희자(정릉2동 마을계획단), 박정근(성북견지우연합회), 박정애(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박현숙(성북시니어인권모임), 배정학(장수마을주민협의회), 이선영(손만세), 전미희(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홍수만(성북마을살이연구회)
	개인 (10)	김준영, 김종건, 김태석, 유제훈, 이용성, 이종안, 차정화, 최도용, 최해숙, 황성호
미정 / 무응답 (6)		고경남, 김범기, 김정연, 김종환, 오창민(협동조합성북신나), 이원교

- [분과 구성 및 조직 현황](#) (붙임#4)

분과	구성 여부	인원
건강	확정 (6)	김준영, 박정근, 이용성, 차정화, 최해숙, 황성호
주민자치	확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건, 김태석, 김희자, 전미희, 최도용 ● (김종환)
교육	미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애, 이선영
도시환경	미정	배정학, 홍수만
문화	미정	이종안
지역경제	미정	유제훈
복지	미정	

- [회의 현장 공유](#)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소식지\(뉴스레터\) 원고 청탁](#)
 - 제안 : 홍보팀 이상은 팀장
 - 내용 : 협치 관련 소식, 정보 안내 또는 칼럼 등
 - 주기 : 월 1회, 매월 29일 원고 마감
 - 고료 있음
 - 창립총회 이후 진행키로 함. (5월 원고는 창립총회 소식)

- 담당자 : 김기민 간사
- 타 지역 근황 (홍수만)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구가 많지 않다. 의회와의 협조도 필수.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경우도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 많지 않다. 네트워크 조직이 많이 힘든 일.
- 안건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2017 사업계획(안) 검토 (붙임#5)
 - 현장 논의
 - 새로운 분들을 초대할 때 협의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확한 목표 지향점이 필요하다. (박정애)
 - 정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홍수만)
 - 협치성북시민협의회는 민관 협치를 위해 민간 주체들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모임이다. (김기민)
 - 민민 협력에 목표를 둔다면 이미 민관 협치의 하위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박정애)
 - 상위, 하위의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민간 영역 조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민관 협치가 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협치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구분하여 둔 것도 민관 협치와 민민 협력이 상호보완적이기도 하고,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민민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혼선이 생기게 된 것. 또, 민간 위탁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분야들간의 협력과 연대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영역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홍수만)
 - 상하 표현은 잘못된 것 같다. 관계 자체는 수평적이지만,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상하가 있을 거라는 의미였으니 정정한다.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협의회도 활동 방향 수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박정애)

- 협의회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홍수만)
- 민관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는데 목표가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조정되면서 힘이 좀 떨어지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
(박정애)
- 박정애 준비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의사 결정 구조에서의 상하 관계란, 협의회가 민관 협치 기구의 하위에 있다는 개념이 아닌, 협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결정해서 추진하더라도 관의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것은 이미 협치를 당면 목표로 잡고 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된 것이라고 본다. 어느 일방이 자의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과 관이 충분히 협의하고 함께 결정해서 집행하자는 것이 협치이고, 그런 관점에서 협의회 활동은 우리의 뜻대로만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자체가 바로 협치라고 생각한다. (김기민)
- 구청에서 협의회 회의 참석하면서 나름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복지협의체 회장들이 참여하길 기대했는데, 개인 자격으로 오거나 다른 민간 단체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협치성북시민협의회(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민관 TFT 회의 참석해서 보니까 구청이 원하는 조직의 수장들이 참석해있더라. 앞으로 구청은 민관 합동 TFT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추진하고, 협의회는 민민 네트워크 조직에 전념해서 단체를 잘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분과 구성 내실있게 해서 실력을 잘 쌓아가면 성북구의 좋은 단체가 될 거라고 본다. 초기보다 참여자도 좋고, 과정 안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아직 남아 계시다. 민간 단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 없을 데 서로 등도 굽어주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다.
(김희자)
- 준비위 활동 참여에 미온적인 분들도 잘 챙겨봐야 한다.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봐야 한다. (최해숙)
 - 일일이 전화 드려서 참여 지속 여부 확인했고,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타 지역에 비하면 여건이 좋은 것이다.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회의록 작성하여 공개하면서 새로운 참여 단위들도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민관이 서로간에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내놓고 해결하는 구조가 전혀 없었다. 이제 그것을 정돈하여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홍수만)

- 분과 구성 확정된 건강, 주민자치 분과는 사전 모임 갖고 분과위원장, 간사 선출해야 할 것. (홍수만)
 - 사전 모임 일정 의장, 간사에게 공유 요망. 다과비 지원 가능하며, 모임 진행에 도움 필요할 경우 지원 예정. (김기민)
 - 주민자치 분과는 김희자 부의장 사전 모임 조직.
 - 건강 분과는 박정근 준비위원 사전 모임 조직.
 - 교육 분과
- 의회와의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해 의회 모니터링 등 활동도 진행하면 좋겠다. (박정애)
 - 협의회가 직접 모니터링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양성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조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기민)

- 기타

- 관치는 경계해야겠지만, 협치를 하는데 있어 구청 관계자와 만날 때 너무 배타적이지 않게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정애)
 - 민간 네트워크 회의인데 사전 동의 없이 참석하거나, 참석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의견을 드린 것이다. 담당자와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다. (홍수만)
- 얼마전 발생한 정릉 놀이터 사건은 중요한 지역 이슈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무척 중요하다.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 선정된다면, 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길음역 금연 거리, 장애인 이동권 등등.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사업, 의원 발의 청원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와 해결 방안들이 구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수만)

- 정릉 놀이터 사건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의 틀만이 아닌 건강, 복지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박정근)
 - 현대사회의 문제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그 다방면의 접근이 협의회와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수만)
 - 정릉천 걸어갈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 곳이었다. 놀이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위치 선정 잘 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협의회가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다. (김희자)
- 12차 정기회의 다과비 지출 : 과자, 음료 등 / 8,400원 / GS25성북중앙점
- 회의 현장납부
 - 박정애 준비위원 : 3~4월 미납 회비 20,000원 납부
- 다음 일정
 - 창립총회 준비위 3차 회의 : 미정, 필요시 소집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 13차 정기회의
 - 일시 5/17(수) 13:30~15:30
 - 장소 안암동자치회관/주민센터 4층 강의실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사전 리허설
 - 일시 5/23(화) 18:00~20:00
 -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